

진로 선택 가이드

2012학번 권혁신

매력 어필

졸업 후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 보유



대학원 석사 졸업



스타트업 2회

- * 예비창업 패키지 선정
- * 초기창업 패키지 선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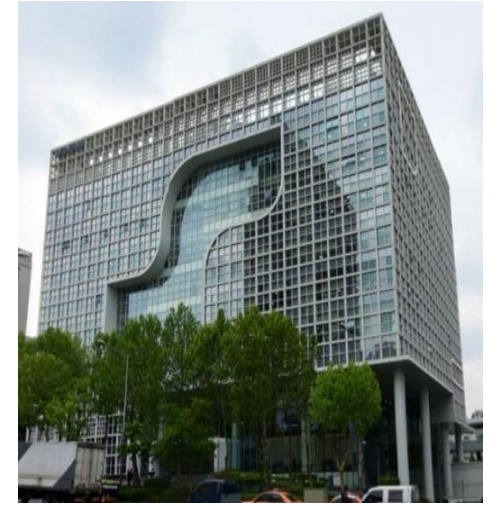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2회

- * 사원수 20명
- * 사원수 150명



중견기업 1회

- * 사원수 6000명



대기업 1회

- * 그룹 사원수 200,000명

매력 어필

졸업 후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 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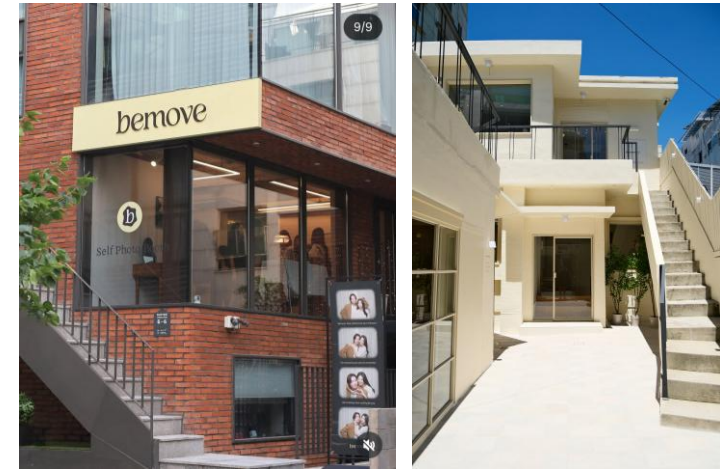
프리랜서

- * 1억 이상 규모 프로젝트
1인 개발 경험 1회



네이버 합격

- * 건강 문제로 입사 포기
→ 건강이 우선이다...



포토부스 브랜드 창업

- * 서울 연남점, 부산 전포점
* 누적 고객 수 160,000명 이상

매력 어필



(여자)아이들 미연 유튜브
포토부스 비교 콘텐츠에서
시청자 투표 1위 선정



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
@bememory_house

목차

1. 진로별 장단점 소개
2. 진로 선택 가이드
3. 취업 확률 높이기
4. 드리고 싶은 말

1. 진로별 장단점 소개

❖ 주의사항

- **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내용**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.
-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참고용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가 경험한 진로 말고 더 다양한 진로들도 많습니다.

1-1. 대학원 석사과정

❖ 장점

- 회사에서 석사 기간 경력을 인정해줌
- R&D 직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 달성
- 논문을 이해하고 구현 및 테스트 할 수 있으며
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게 됨
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생김
- 연구 프로젝트 경험
- 논문 작성 경험

1-1. 대학원 석사과정

❖ 단점

- 취업 회피용이 될 경우 시간 낭비
- 선택한 연구 분야로 취업 문이 좁혀짐
- 주 70시간 이상 투자 필요
-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는 도움이 되지 않음
- 교수님과 연구실 선배를 잘 만나야 함

1-2. 스타트업

❖ 장점

- 회사의 다양한 직무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음
-> 다른 직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소통 능력 향상
-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음
- 투자 유치 경험을 쌓을 수 있음
- 중소기업 대표님께 존경심이 생김
- 임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됨

1-2. 스타트업

❖ 단점

- 생존, 월급을 걱정해야 함
- 인맥이 없으면 진행 불가
-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All-rounder를 원하지 않음
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판 인재를 원함

1-3. 중소기업

❖ 장점

- 경쟁력 있는 회사는 월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
- 빠른 실무 능력 향상, 빠른 성장 가능
- 다른 직무 인원이 있으므로, 개발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음
- 문제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음
- 승진 경쟁이 없음

1-3. 중소기업

❖ 단점

- 낮은 복지 수준
- 야근, 주말 근무 가능성 높음
- 사수가 없으면 성장이 느림
- 개발 뿐만 아니라 영업, 기술지원, 기획 등 다른 업무도 하게 될 수 있음

1-4. 중견기업

❖ 장점

- 월급 걱정 X
- 중간 복지 수준
- 특정 분야 전문가로 성장 가능
- 워라벨 확보 가능
- 승진 경쟁이 없음

1-4. 중견기업

❖ 단점

- 규모로 인해 시스템이 생겨 비효율이 생길 수 있음
- 보고서 작성
- 부서간 이해관계 충돌 해결이 어려움
- 열심히 하려는 문화가 없음

1-5. 대기업

❖ 장점

- 높은 복지 수준
- 성과급
- 대출이 잘나옴
- 대규모 시스템 경험 가능
- 인맥 형성

1-5. 대기업

❖ 단점

- 승진 경쟁이 심함
-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 정치를 해야함
-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어려움
- 보고서
- 전문성 분야 폭이 좁아짐
-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함

1-6. 프리랜서

❖ 장점

- 원하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음
-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음

1-6. 프리랜서

❖ 단점

- 인맥과 경험이 없으면 일을 받기 힘들
- 무한 책임
- 클라이언트 회사 사무실에 소환돼서 일을 할 수도 있음

1-7. 자영업

❖ 장점

- 노력한 만큼 매출 발생
- 원하는 속도로 일을 할 수 있음
-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음

1-7. 자영업

❖ 단점

- 모든 것을 해야 함
 - 회계, 홍보, 개발, 페인트, 전기, 수리, 인테리어, 목공, 소송, 외주 관리 등



1-7. 자영업

❖ 단점

-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이 나면 카피하러 헌터들이 몰려옴
주변에 유사 매장을 차려 파이를 뺏음
- 싸울 일이 많음
- 큰 돈을 벌려면 체인점을 해야함



1-7. 자영업

❖ 카피 예시 사례1 연남동 유키모찌

- 젤라또를 찹쌀로 감싸는 디저트
- 원조는 아니지만 이러한 디저트는 연남동에 한 곳만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섰음



1-7. 자영업

❖ 카피 예시 사례1 연남동 유키모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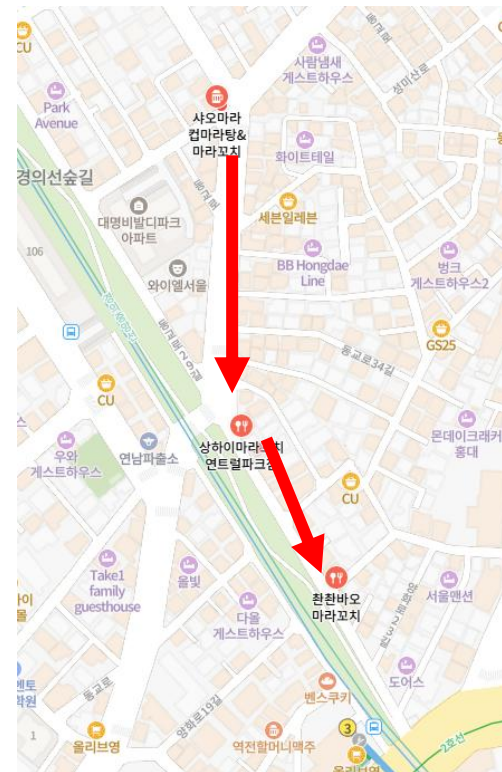
- 장사가 잘되자 더 비싸고 좋은 자리에 유사 상품 매장이 생기고 손님이 크게 줄음



1-7. 자영업

❖ 카피 예시 사례2 컵마라탕

- 장사가 잘되자 3개월도 안돼서 더 비싸고 좋은 자리에 유사 상품 매장이 생김



2. 진로 선택 가이드

❖ 스타트업

- 자본, 인력, 인맥이 준비돼 있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때만 추천
- 현 시점에서는 자본, 인력, 인맥이 없는 대학생, 경력 없는 졸업생이 성공하기 힘든 상황
- 경쟁력 있고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는 신입을 잘 뽑지 않음..

2. 진로 선택 가이드

❖ 중소기업

- 자율적인 분위기, 주도적인 업무,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추천
- 추천 중소기업
 -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경쟁력 있는 제품 보유
 - 인원수 20인 이상
 - 화장실이 깨끗하고 사무실 청결
 - 선임 필수
 - 나에게 맞는 업무분야

2. 진로 선택 가이드

❖ 중견기업

- 공무원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고 싶다면 추천
- 동종 업계 상위권 기업으로 선택

❖ 대기업

- 승진 경쟁, 정치가 가능하거나 대출이 필요하다면 추천

2. 진로 선택 가이드

❖ 프리랜서

- 현시점에서는 비추천. 경력이 많이 쌓이고 인맥이 많아지면 추천

❖ 자영업

- 자본과 인력이 준비 돼있어 빠르게 퍼트려 카피하려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때 추천
- 잘되면 카피 헌터가 3개월 안에 수십명이 몰려옴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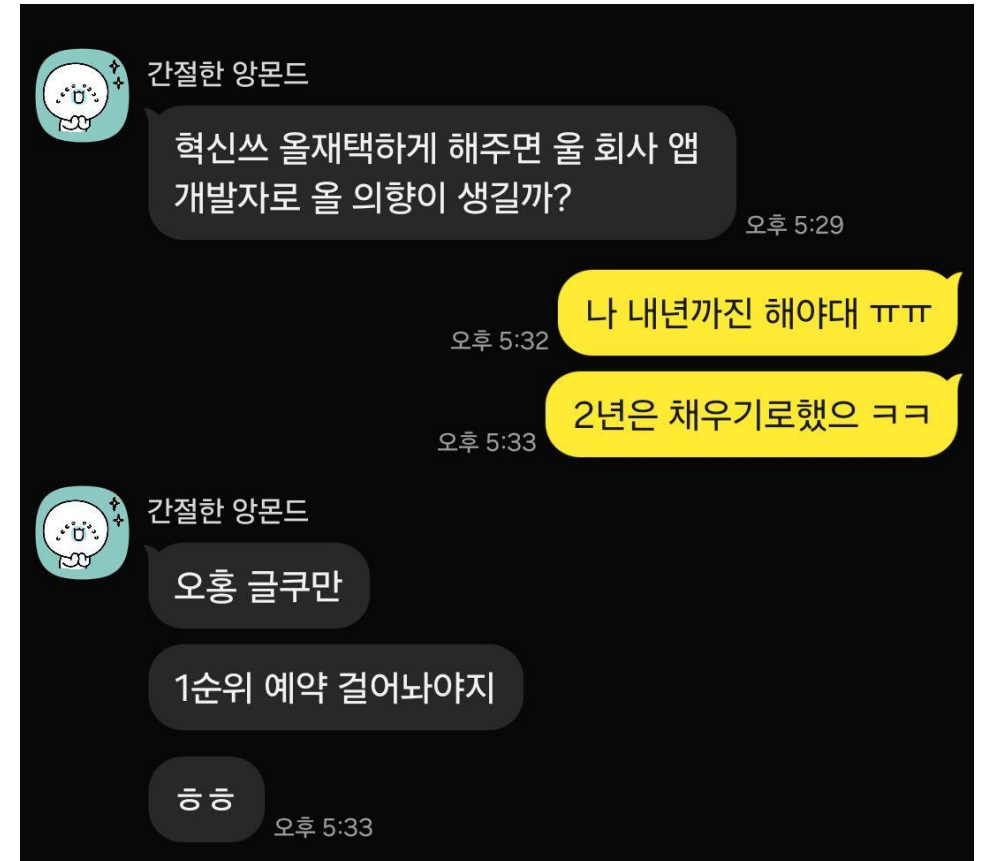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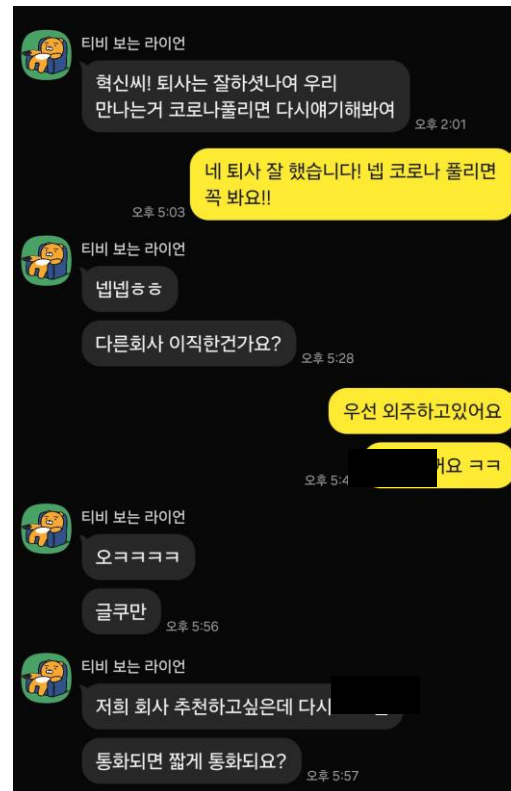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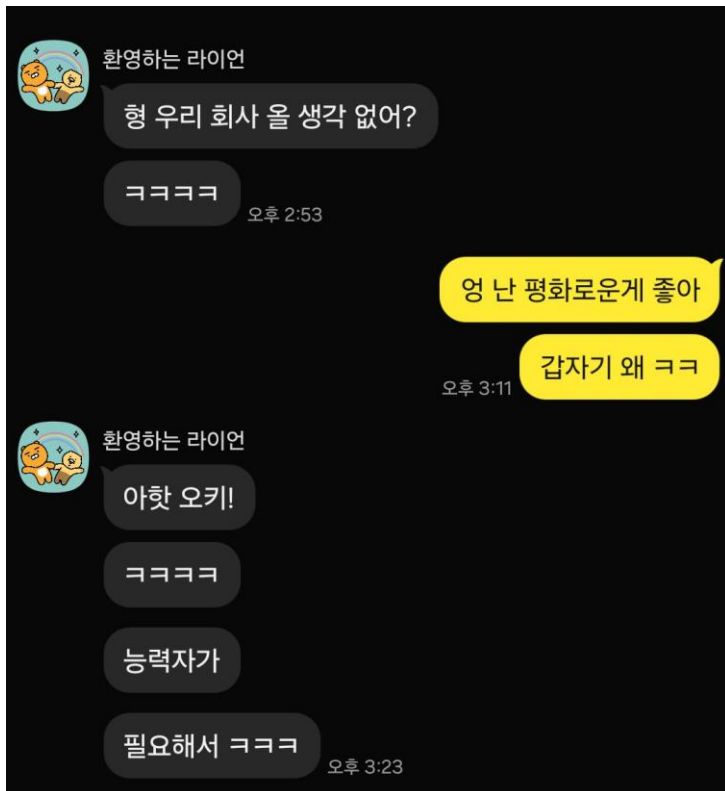
❖ 브랜딩

-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
-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
-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브랜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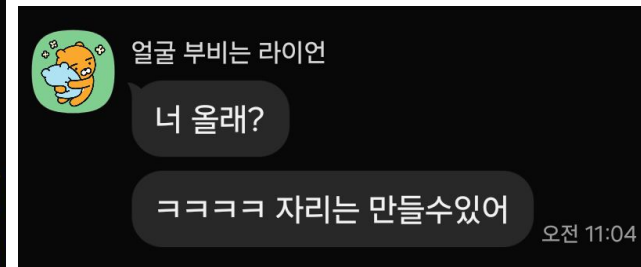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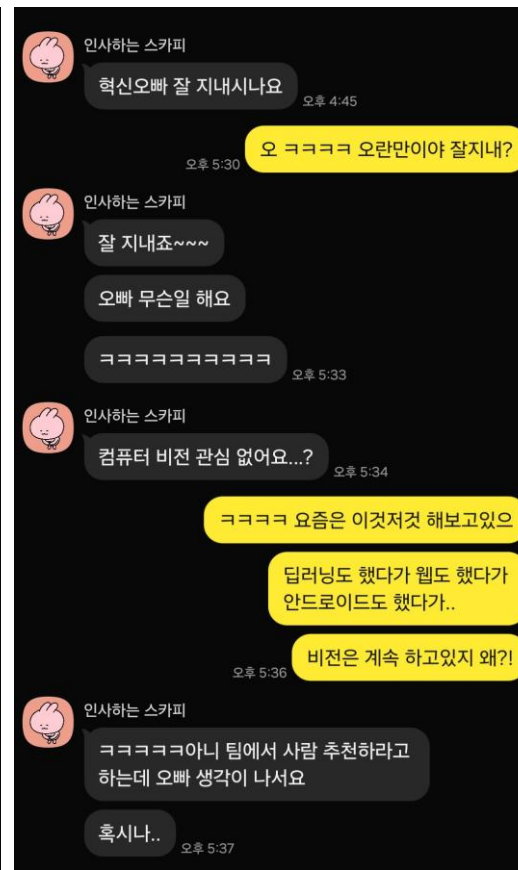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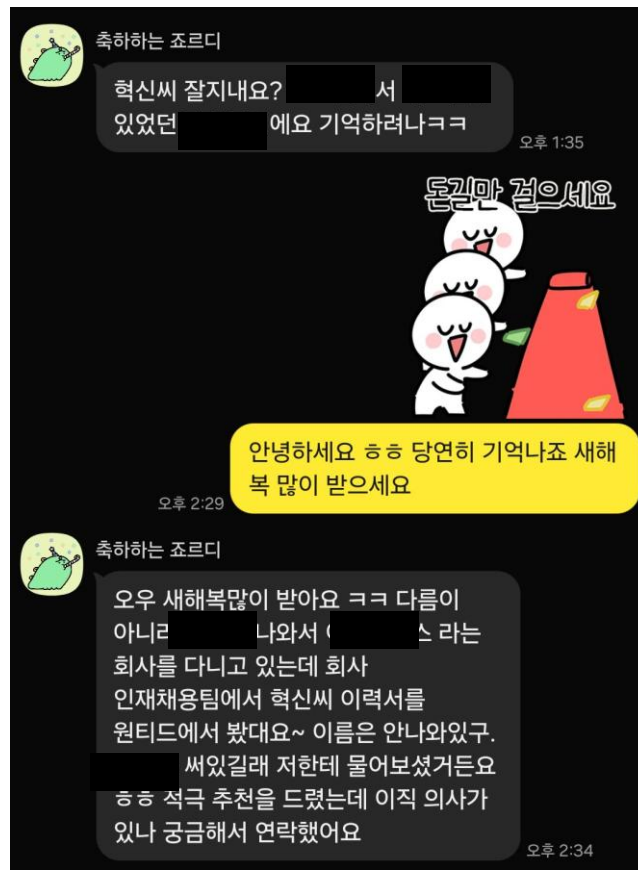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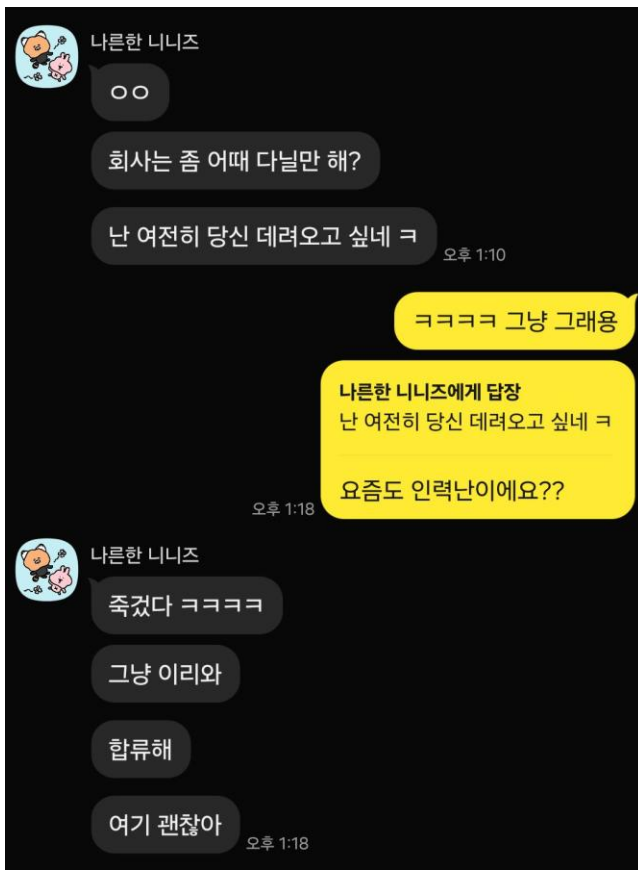
- 가만히 있어도 취업이 가능

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브랜딩

- 가만히 있어도 취업이 가능

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브랜딩

- 왜 취업 확률이 높아질까?
- 채용 공고를 내기 전 팀 내에서 검증된 지인을 뽑으려는 경향이 강함
- 인재 추천 시 포상금도 있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인맥을 넓히자

- 자기 브랜딩을 잘 하고 여러 사람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맥 형성
-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취업 제안 확률 증가

❖ 주변 사람을 응원하자

-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질투 대신 축하하고 밥을 사주자
- 자소서, 포트폴리오, 면접내용 등을 공유받을 수 있음
- 나중에 나를 추천해 줄 수 있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 공유

-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인터뷰를 함
- 서류 검토, 면접 평가를 하는 현직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봄
- 날 것 그대로의 내용
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개발자, 인사팀의 답변이 섞여 있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 공유

▪ 1. 지원서류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

- 평균 10분(깃링크나 블로그링크 남기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기때문에 더 걸림)
- 5분
- 경력의 경우는, 이력만으로 채우지만, 신입의 경우 포트폴리오로 쥐어짜서 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음. 1차적으로는 최대 5~10분 정도로만 보고 필터해두고 다시 필터한 지원자들을 두고 걸러냄
- 음.. 30분 이내? 왜냐면 일도 해야하고 몇가지 보면 대충 느낌은 올거같음
- 지원서류를 대략적으로 보는데 3분이내,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이 있으면 최대 5~8분 까지도 봄
- 인사팀에서 서류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 안걸리는데 인사팀 서류 검토 -> 적합자 현업 서류 검토 -> 면접 일정 조율. 위 과정에서 현업에서 고민이 길어지거나, 업무가 많아서 서류 검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2. 지원서류를 볼 때 주로 보는 부분

- 업무 연관 개발 및 프로젝트 경험, 협업 능력(플젝하면서 트러블 해결한 경험같은거...?)
- 학력, 업무이력, 특이한 경력. 학력 == 끈기, 성실함. 업무 진행 이력, 특이한 경력 - 캡스톤, 이전 회사에서 진행한 업무의 본인 참여한 부분에 대한 설명
- 포트폴리오 / 이력 / 경험 > 학과, 학교, 나이 > 기본 자기 소개서 (성장과정, 성격, 지원 동기, 입사 후 포부). 회사는 신입에게 많은 기술을 "이미" 완성적으로 잘 알고 뒀는지 보지 않음. 물론 이미 갖추었다면, 베스트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. 신입이기 때문에, "포트폴리오"에 물어 나온 기술들, 과정들을 주로 봄. 이 사람이 최신기술, 우리회사와 비슷한 기술스택을 썼다면 왜 썼는지, 깊이는 어느정도 인지를 주로 봄. 요즘은 팀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(면접관이 볼 수 있게 이미 서비스중인 게 베스트)
- 나의 경우는 지원서에 실제로 진행해본 프로젝트의 퀄리티? 를 볼듯. 거기서 자기가 한 부분을 얼마나 딱딱 잘 요약해서 썼는지 뭔가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거를 미리 생각하고 배치를 해두면 일잘하는 느낌 날듯. 데모영상도 필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데모/코드/예시를 궁금해할거같다 하고 넣으면 오? 이럴듯. 그 다음에 보는데 학벌도 플러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, 만났을 때 대화 잘 되고 느낌이 좋아야 플러스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듯
-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CS, 아키텍처 이해도가 높은 과제를 했는지,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
- 신입의 경우 채용 직무 관련 활동, 인턴 경력이 있는지 여부와 자소서에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는지 확인. 경력직의 경우 경력기술서 등 전 재직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프로젝트 많이 보는 편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3. 지원서류를 볼 때 주로 보지 않는 부분

- 없음.. 어학점수 정도...?
- 성장배경, 회사 지원 이유. 너무 뻥함.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것들을 대부분 많이 작성해서 가져옴. 거의다 비슷함.
- 모든 기술 면접관들이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저의 초점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 자기 소개서 (성장과정, 성격, 지원 동기, 입사후 포부) 등 가장 기본으로 이력서에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들을 거의 보지 않음. 어차피 다 자기자신대로 솔직하게 쓰기도 어렵고 서류가 작은 회사에서도 100개씩인데, 대기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겠습니까? 이 부분들은 기술면접 혹은 최종면접에서 기술 질문이 어느 정도 통과되면 이 사람이 나와 회사와 잘 맞는지를 보기위해 그때 다시 읽고 질문하며 알아감
- 나의 경우 무슨 교육을 받았다, 자격증을 땀다는.. 잘 안볼듯!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라
- 불필요한 기교, 기술적으로 무의미한 프로젝트들
- 포지션과 무관한 자격증의 경우 잘 보지 않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4.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은 100% 만족해야 하는가?

- 옹. 이걸 인사에서 거를듯
- 신입이면 30%만 만족해도됨. 자격요건을 100%만족하는 지원자는 내부 추천 아닌 이상 어려움. 예로, 면접관들도 새롭게 뽑을 때 타사의 지원공고를 참고하는데, 면접을 보면서, 본인들이 잘못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음.
- 절대 아님, 경력 10년 차를 뽑는 곳에 신입이 지원하는 정도만 아니면 2~3년차에는 본인이 꽤 잘 갖췄다고 판단한다면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함. 자격요건들이 5개가 있다면, 그중 2~3개 정도만 만족해도 지원해도 된다고 봄
- 흠.. 핵심적인것만 자격요건에 두고 나머지는 우대조건에 뒀다면 그래야겠지? 근데 그것도 한 8~90 정도면 될듯 신입이면.
- 100%까지는 아님, 채용공고에 모든걸 담아낼 수 없음 핵심은 이사람이 정말 기본기를 잘 알고 있고, 성실한지 임. 이 맥락 안에서
- 100% 만족하면 좋지만, 신입 ~ 3년 미만 경력자는 현업에서 일을 가르치면서 키워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보고 하려고 하는 업무의 결이 맞고, 나의 역량 + 배우면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느끼면 지원 해보는 걸 추천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5. 채용 공고의 우대조건은 어느정도 만족해야 하는가?

- 만족하면 확실히 자소서 오래 보게 됨. 근데 학부생활만 해서는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을듯..? 그래서 따로 뭐든 해야함
- 신입이면 30%, 경력이면 60%
- 우대조건은 말 그대로, 이 사람이 이것도 잘하면 좋는데~ 하는 정도,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원자가 많은, 즉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우대조건을 많이 충족할수록 확률을 올리는 기회가 될 듯 . 결국 취업률을 높이려면 뻘히 하는 소리지만 그냥 눈 낮춰서 작은 회사를 불특정 다수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눈을 높여 목표가 되는 몇 개의 회사의 우대조건을 많이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듯. 그전에 분야는 최소 정해놔야 함 (게임, 프론트, 백엔드, 데이터베이스, 보안 등), 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너무 폭이 넓은
- 기본을 잘하면 우대조건은 하나가면 된다 생각함. 많이들 MS나 카프카 우대조건에 넣는데, 어떻게 써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거라 그냥 써봤다 정도로만 만족이 안될듯
- 경력직일수록 우대조건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음. 바로 일해야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. 신입은 기본기와 성실함과 똑똑함을 증명하는게 우선임
- 우대조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원자까지는 기대 안함 마음에 드는 회사/직무의 채용공고에서 우대조건 중 1~2개라도 포함된다면 지원 추천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6.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가

-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
- 본인이 한 업무를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. 숨김없이,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담백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. 어려운 것을 한 것 보다, 쉬운 것도 고민을 하고, 고민의 깊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.
- 과거에는 "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"이었으나 요즘은 "시를 잘 활용하면서"가 앞에 붙는 것 같음. 논외로, 시를 잘 쓰더라도, 너무 의존하면 안됨
- 책임감 있으면서도,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는 사람
- 말그대로 기본기가 튼튼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(기본기가 튼튼한채,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하고, 협업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)
- 업무 /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입사하여 오래 재직할 사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7. 어떤 사람을 뽑기 싫은가

- 자소서 내 혹은 본인 플젝 부분에서 질문한 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 (준비성 떨어져보임)
- 대답을 대충하는 사람.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. (의욕만 있는 사람)
- 싸가지 없는 사람 / 예의를 배우지 못한 사람 / 근거없는 고집의 사람. 근거있는 자기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 같으나 이것은 취향을 많이 타는 것 같음. 신입에게 대부분은 말잘듣는, 싹싹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그 반대. 책임감은 적으면서 공부도 안해가지고 일정 못맞추거나 핑계대거나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
-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은채 면접 문답에 해명과 변명이 많은 사례. 확실하지 않은데 잘못 된 답변을 급하게 말하는 사례. 핵심을 짚지 못하는 사람
- 입사해도 오래 다니지 못할 사람 (이직 횟수 많음 / 전 직장들 재직 기간 짧음)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8. 면접에서 주로 보는 부분은?

- 꾸준한 직무관련 활동 (일회성이 아닌 얼마나 지속적으로 개발 활동을 해왔는지)
- 발표자세, 매력, *회사에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해온 사람
- 1순위 "기술" > 2순위 "향후 몇년간 같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인지, 성장가능한 사람인지", "성격". 1순위인 기술은 경력이면 더더욱, 신입의 경우는 2순위의 비중이 비슷해짐. 2순위 정보는 지원동기, 성격, 입사후포부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라고 봄
- 포퓰이 자신이 정말 한게 맞는지, 기술적으로 어떤 점을 고민했었는지 진정성.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는 직군불문 보지 않을까
- 기본 지식을 동반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. (예를 들어, iOS개발을 해봤다면 문제력은 상황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살펴봤는지, 왜 그 방법으로 해결했는지, 자연스럽게 문답이 이어짐)
- 해당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 확인 / 면접에 임하는 태도 (인성)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9. 부트캠프에 대한 생각은?

- 부트캠프나 싸피는 그냥 했구나~ 이정도. 그 안에서 어떤걸 배우고 프로젝트를 했다면 어떤 프레임워크 사용하고 어떤 구조로 개발했는지 등.. 그거 해서 뭐 남았는지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봄
- 의지가 약한사람들은 지원해서, 캠프를 통해 취준하는것도 좋다고 생각. 본인 공부할것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지원해서 기회의 많이 가지자. 취직은 95%운이다.
-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이 목표보다는, 학교에서는 좀 더 넓게 배웠으니 이제 분야를 좁혀 여기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경험해본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은 것 같음 + 팀 프로젝트, 토이 프로젝트를 쉽게 경험해볼 수 있음. 하지만, 본인도 과거 부트캠프를 안했고, 지금도 할생각이 없으니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함 / 요즘 팀프로젝트 구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음
- 별 생각은 없음.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왔다면 좋은거고 단순히 했다만으로는 편차가 클거 같다는 생각이 듦
- 부트캠프 출신 분들은 대체로 기본기가 탄탄하고, 성실하고, 똑똑하신 분이 많았음. 부트캠프 자체도 합격하기 힘든걸로 알고 있고, 실제 부트캠프 수료생 중 네카라쿠배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. 커넥트재단 부스트캠프 출신을 말한거임나는
- 비전공자 -> 부트캠프 : 현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음. 부트캠프에서 교육을 받아도 비전공자는 전공자보다 역량이 낮을거라는 현업 담당자들의 인식이 있음

3. 취업 확률 높이기

❖ 현직자 인터뷰

▪ 10. SSAFY 같은 기업 아카데미에 대한 생각은?

- 배우기만 하는것은 의미 없는것 같음. 학교에서 배운게 부족해서 참여해보는건 의미 있지만. 거기 출신이라고 이득이 있지는 않음.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도 안됨.
- 처음보지만, 잠깐 봐보니 교육 기간도 길고, 교육지원금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커리큘럼을 짜줄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. 서류에서 9~10이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게 의미 있냐는 질문이었다면 의미없다라고 말할 수 있음 / 결국 포트폴리오, 기술을 쌓는게 더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만 생각해도됨/ 특정 좋은 부트캠프를 나왔다고 적혀있어도 어차피 면접관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잘 가르치는 곳인지 모를 확률이 높고 중요하지 않음
- 못들어봄
- 잘 모름.
- 전공자가 SSAFY 같은 기업 아카데미 경험이 있으면 좋아함

4. 드리고 싶은 말

❖ 자기 브랜딩 필수

-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
-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
-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

❖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제안, 기회가 따라옴

❖ 취업은 운의 영향도 크다 자책하지 말자

❖ 레퍼런스 체크를 주의하자

Q&A

gwon.innovation@gmail.com

모든 문의 환영